

buddhanews.com

# 어떠한 게 다가와도 공심에다 놓는다면 무효 돼버려

## 25면에서 계속

도 없어요. 그게 없애는 방법이에요. 마음은 제가 없어서 어떠한 말을 했든지 어떠한 예너지를 빼가든지, 정신력을 빼어 가든지 그 근본은 절대 못 빼어가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자기의 주체가 완전히 섰다면 절대로 빼어 가고 빼어 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상대가 잔뜩 화가 나서 '네 이놈! 너 어디 두고 보자.' 하고서 달려든다 해도 '애! 그러지 말고 추운데 들어가자.' 하고선 들어 가서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랬어. 일단 뭐라도 먹고 얘기하자' 하고 아주 좋게, 나와 돌이 아니게 이렇게 정말 진정한 친구로서 대해주세요. 그러면 약으로, 인연에 따라서 업보로 인해서 나한테 닥치더라도 모든 것이 나하고 돌이 아니게 '그것도 내 주인공이야.' 한다면 그 약으로 달려들었던 것도 선으로 그냥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녹아 버리게 마련이거든요.

마음이 이런 물질이라면 안 되겠지만 물질이 아니고 형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어떠한 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형상이 없는 나한테, 모든 것을 공에다가 즉, 공심에다가 모든 것을 놓고 '너만이 그렇게 안 하게 할 수 있어. 그 사람도 그렇게 안 하게 할 수 있어.' 한다면 그게 그대로 무효가 돼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부 재료로 삼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체유심조라는데...

☞ 스님, 언제나 자상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강만 점으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체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인가? 근데 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요?

☞ 그렇죠.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이 마음으로 인해서 보는 것도 동시에 보고 듣고 말하고 몸을 움직여주고 이리저리, 근데 그 마음이 말입니다. 자유스럽게 살라고 그 많은 말들을, 그 많은 생각들을 다 자유롭게 했는데 불구하고 자유롭게 생각지 못하고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마음 빼놓고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중세계라고 하는데, 상세계, 중세계, 하세계 이렇게 삼 세계가 같이 돌아가고 있고,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높아지고 차원이 낮아지고 차원이 아주 저 아래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습도 그 차원에 따라 나오죠,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도 각자 자유권을 얻기 위해서, 누가 그거를 말해 주지 이전에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죠. 누가 대신 잡을 자 주고, 누가 대신 먹어 주고, 누가 대신 통을 뉘 주고, 누가 아파 주고, 누가 죽어 주고, 누가 깨닫게 해주느냐는 얘기에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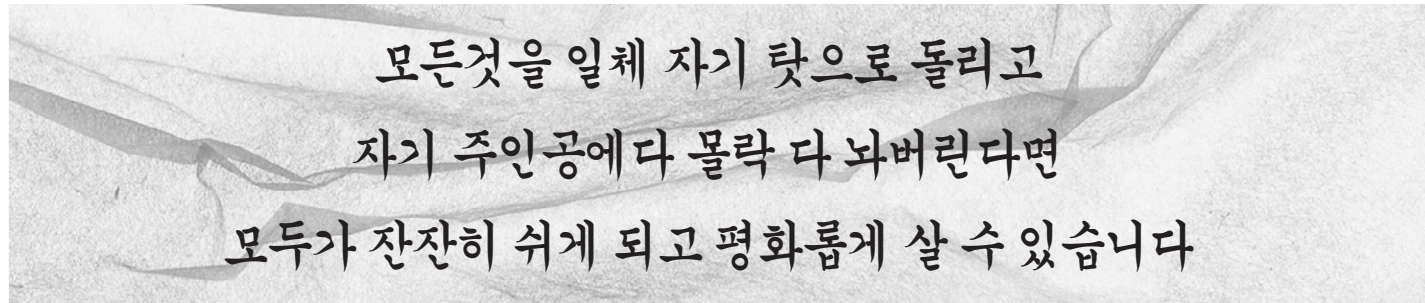
서 자기 정수의 자동적인 컴퓨터에 자기 차원에 따라서 입력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내가 산다. 내가 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먹었다.' 이렇게 말씀들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몸뚱이 속에도 생명체들이 잔뜩 들어 있는데 어떻게 물을 먹었는데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더불어 같이 먹었죠.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체들은 나에게 또 작용을 해 줘요. 그러니까 항상 더불어 에너지를 없어요. '내가 주면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건전하게, 즉 말하자면 둥글게, 좀 밝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대로 입력이 된 거니까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난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몸뚱이 속에도 생명체들이 잔뜩 들어 있는데 어떻게 물을 먹었는데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더불어 같이 먹었죠.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체들은 나에게 또 작용을 해 줘요. 그러니까 항상 더불어 에너지를 없어요. '내가 주면 받는다.' 이런 거죠.

모든것을 일체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 주인공에다 몰락 다 놔버린다면 모두가 잔잔히 쉬게 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없다. 나는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요거는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할 수 없다.' 이렇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게 돼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못하죠. 여러분한테 자유스럽게, 마음도 말도 생각도 자유스럽게 했는데도,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쓰라고 했는데도 자유스럽게 할 수가 없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이러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움직여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내 이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자기는 무한이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에 '진짜 너만이 이 몸을 푸르게 살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줄 수도 있고, 너만이 해결사가 돼줄 수도 있다.' 하고 진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말하고 자유롭게 사세요. 자기 이 몸이 씩이러면 오직 자기 뿌리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 스님,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막상 극한 상황에 부딪치게 되면 내 탓으로 돌려지질 않습니다. 모든 게 상대 탓인 것만 같고 저는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상태를 미워하면서 스스로 힘들어하게 됩니다. 생각으로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따로 놀게 됩니다. 저의 공부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 저를 한번 꾸짖어 주십시오.

☞ 우리 마음에서, 들이고 내는 그 작용을 내 마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알고 짓고 모르고

가 잔잔히 쉬게 되고 나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얽힌다 해도, 끊어지지 않고 나를 중요하고 미워한다 해도 나에게 돌리고서 그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역시 그 마음은 돌아오지 않기에 더러운 물방울 하나 물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르고 옳음에 있어서, 나쁘고 좋음에 있어서 이것을 항상 따지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나쁘고 좋다, 또는 이진 나쁘니까 안 먹고 이진 좋으니까 먹고 이런 것을 따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크고 작다 이런 것을 논의하고 따진다면 결국은 어떠한 조그마한 부딪힘에도 나는 쓰러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나쁘고 좋은 걸 몰락 다 놔버렸을 때, 나쁘다 좋다 돌이 아닌 그 중심이 완벽하게 섰을 때는 어떠한 고통이라도 쓰러지지 않게 돼 있죠. 어떠한 바람에도, 어떠한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마음 주체에게 다 몰락 다 버리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본분과 더불어 산란함은 다 사라지고 참 조용하게 자기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 애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어요

☞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음식을 너무 함부로 버리는 거예요. 맛있게 한다고 제가 너무 애들한테 소홀했나 봅니다. 애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는데 어떻게 이끌어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이 앞으로 자손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밥을 먹게 돼도 항상 감사하며 밥을 먹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애를 쓰고 피뎠을 흘려서 벌어다가 이렇게 밥을 먹는구나 하는 생각을 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들이 속으로 '아버지,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조그마할 때부터 그런 걸 길러 주십시오. 그런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애들은 나가서 일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와 모든 자비, 사랑을 말해 줘도 모릅니다.

☞ 그러니 항상 이 뜻을 간단하게 '너의 주인공은 너를 끌고 다니고 너를 도와준다. 난 사람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아무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너를 위하지만 네가 저기 나갔을 때, 바깥에 나갔을 때

는 엄마 아빠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를 돕고 다니는 게 네 주인공밖에, 너 자신의 주인공밖에는 내 몸뚱이를 보호해 줄 수가 없네.' 이렇게 일러 주세요. 무슨 일을 당하지 않도록.

☞ 그것이 너무로 친다면 뿌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를 아무리 붙들고, 잎새를 아무리 붙들고 심신하게 만든대도 그것은 아니 됩니다. 뿌리를 찌르지 않게, 뿌리를 도와서 항상 심신하게 해 주면 바로 그 가지나 이파리가 얼마나 심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금 실력을 해 보세요. 그러면 벌써 느껴집니다. 아이들의 이 마음에서 감응이 오고, '아하!' 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려면, 아이들을 어찌나 하고 있지만 말고 무엇보다 부모들이 먼저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그 마음이 진실되게 전해지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마음이 항상 괴로웠어요

☞ 스님, 저는 참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도 속앓이 하다 돌아가셨고 매사에 불평이 많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나마 큰스님 법문을 만나게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마음을 아주 나쁘게 쓰면 금생에도 괴롭지만 내생에도 괴로워진다는 말도 하던데 스님,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동안의 잘못된 삶을 참회하기 위해서 뭐든지 힘들게 해 보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우리가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는다면 여기는 강원도다 여기는 강원이다 이런 것을 다 써 붙이게 돼 있죠? 그런데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지하게 돈이 든단 말입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말하자면 무지한 나의 회생이 따르고 무지한 인내가 따르고, 믿음이 따르고 의단이 따르고, 의욕이 따르고 용단이 따르는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무슨 좋은 일을 했다 이라고선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회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나왔다 하고 얘기하지, 그게 조그마한 일로 그냥 그렇게 길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도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겁니다, 바로.

☞ 말없이 묵묵히 내가 고속도로를 지금 만들어 나가는 데 웃도 잘 믿지 못하고 먹지도 잘 못하고 그냥 그 고속도로만 열심히 댈수록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옆에 뭐가 필요합니까? 고속도로만 열심히 하고 나가고 '강원도다 강원이다. 졸을 친다. 무슨 어디 이거 해 놔야지. 깜박이 해 놔야지.' 하는 거는 나중이예요. 이거는 고속도로만 해 놓게 되면 자기네들이 스스로서 벌써 어떤 표시가 되고 이렇게 수신통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해 나가는 데는 그러한 역경이 아니라면 자기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주어지지 않죠. 그것을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귀중한 자기의 보물을 맞출 수 없다.' 이겁니다. 비교해서 말하자면.

☞ 그런데 '나는 지금 세상에서 이러한 마음을 쓰면 살아서도 괴롭고 죽어서도 괴롭고 양쪽이 다 괴롭다.' 이러는데 양쪽이 괴로울 것도 없는 거죠. 왜?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마음인데 어디 죽은 게 있고 산 게 있었습니까? 이것은 벌써 두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있다 이겁니다.

☞ 지금 신자로들, 고속도로를 하고 나가는데, 두 길을 만들어 놓고 이 길은 나쁜 길이고 이 길은 좋은 길이다 이런 것만 벌써 안 되는 겁니다. 나쁜 길이란 좋은 길인데, 이 좋은 길도 내가 한 거고 나쁜 길도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나쁜 길과 좋은 길을 싸잡아 쥐고 너는 지켜봐라. 어떤 게 좋은가를 너 스스로서 지켜봐라 이거거든요. 지금 나는, 그러면 내가 다시 이것이 나쁘다 좋다를 거머쥔 채 자기는 '아하, 이것을 운전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거로구나. 나침판이 바로 나로구나.' 하고서 그 운전대를 자기가 거머쥐고 돌릴 수 있다 이겁니다.

☞ 그랬을 때 자기는, 즉 말하자면 '내가 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나쁘더라. 그러니 모든 걸 몰락 거머쥐고 모든 거는 여기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잘 돌리고 내가 그대로 여유하게 잘함으로써 그것이 내생이 따로 없고 현생이 따로 없고 부처가 따로 없고 중생이 따로 없더라.' 이라고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빙의령은 반야선에 태워보낸다!!**

영가장에 (빙의)는, 옛적부터 윤회(나고죽음의 반복)하던 동안에 악연으로 인한 업을 지어, 그것이 잠재의식(전생의식)속에 암장(기억)되었다가, 현생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 사람 몸 한번 받기 어려운데, 어차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빙의로 인한 장애를 이 생에서 치유 못하면, 내 생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빙의작용**

- 원인 모르게 악마의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 본인의 의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좌절, 실패
- 조상 영가에 의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없다.
- 빙의 치유를 여러번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천지만물이 반야선아님이 아닌데 세상만사에 고해바다 건너는 이, 보기 어렵네

**성공사례**

- 울산의 36세 여교사는 상품광고 및 인터넷 쇼핑에 남비벽이 심해 빛 더미에서 방향할때,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하는 의식으로 영가를 반야선에 태워 전상계로 보낸 후 정상적인 삶을 가졌다. 50대에 사망한 시 고모의 혼령이 빙의된 사실을 알았다.
-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여교생은 영가 258위에 빙의되어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 영가 마다 반야선을 태워 보낸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지리산 씨레봉 아래 1100고지 토크에서 15년간 고행

**서진암 선운 합장**

051)783-0858 / 010-6289-1233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1596-11 103호 (반여초등학교 근처)

**전자식 2종문 3종경보 특헌**

**불 전 합**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122회 부산 3000배 용맹정진**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며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공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 우리들 마음속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날마다 행복만 날을 확산하는 염불선도우미를 중창자 천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 날 짜 : 2009년 3월 14일(토) 저녁 9시 ~ 2009년 3월 15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100% 면 소재 흰색상의, 흰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구동참자는 선물), 기도포(항석을 덮을 큰수건), 맴 뒤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질수형 특수 덧신, 면장갑2개, 위생비닐장갑 1개,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 아프신분(팔관예원 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고리뼈, 차가우신분(울라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부산 금정법당 ☞ 지하철 1호선 두산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화회전 50M 경우빌딩 4층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법왕정사**

수행중심교육도량

-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랭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콜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